

# 2023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11/5	[뉴스현장]북北 주민 4명 목선 타고 동해로 귀순...합동 신문 예정 [뉴스포커스]'귀순 목선' 어민이 먼저 발견...'경계 실패' 논란	
김홍태	11/12	[뉴스10]떡거리 물가, 10월 기준 '3년 연속 5%대' [토요와이드]한화진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입장 전달	
임윤주	11/19	[뉴스현장]"마약 투약없다" 지드래곤 조금 전 출석...수사 쟁점은? [뉴스현장]유홍주점 여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 제공 의사 압수 수색	
안지연	11/26	[뉴스1번지]지자체 행정망 오류...주민센터·정부24 서류 발급 차질 [뉴스초점]거리 응원에 400만원 압표까지...'롤드컵' 결승전 열기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11/5(일)	박세진	<p>10월 28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와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기사는 대개 북한 선박이 남하하는 경우 합참에서 먼저 식별하고 언론에 발표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민 신고 및 해경 출동 이후 언론 속보가 나왔고 그 이후 합참의 브리핑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상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시망의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p>군 경계작전의 실패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심층적으로 해당 이슈를 살펴본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전달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하지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적인 대비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감시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앞서 과연 정부가 군의 경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병력 부족 문제와 연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p>	<p>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깊이 있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3 11/12(일)	김홍태	<p>지난 4일 뉴스오늘에서는 중금속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폐나 뇌로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면,</p>	<p>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시기, 실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p>

		<p>공기질이 나쁠 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건강 수칙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유해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호흡기 문제를 넘어 심장 질환과 뇌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전달한 점은 이해를 돕고 실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특히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마스크의 선택 그리고 외출 시 KF80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실내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좋은 보도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의 실내 환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건강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연구 결과를 보도하고 특히나 미세먼지가 어린이나 노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다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는지 방법 전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등의 정보가 충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2023 11/19(일)	임윤주	<p>9일 &lt;뉴스워치&gt;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류 관련 처방 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미 올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권고 사항에 따르면, 언론은 항정신성의약품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 기자는, 정확한 명칭을 자제하고자 '마약류 관련 처방', 혹은 '항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활용된 자료화면에서는</p>	<p>영상 자료 화면에 마약류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영상편집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신중 마약류가 다른 형태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인에게 형태를 알려야 하는 추가 마약 사범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p>

		약품의 정확한 명칭이 적힌 약병들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처방은 모방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는 보도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3 11/26(일)	안지연	<p>지난 17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뉴스1번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정 전산망인 '새울'의 이상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시민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어진 보도에서는 행정전산망 오류의 원인과 늦어지고 있는 전산망 복구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울'이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서류 발급을 하지 못한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짚어주어 시청자들에게 폭 넓은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p> <p>그러나 전화 연결 당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자막으로 반영되지 않아 인터뷰의 내용과 자막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의견은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아 자막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각 질문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전화연결 자막을 더 충실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막 숫자가 과다할 경우 부조종실(AD)에서 운용하는데 애로가 있고 기자가 읽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본문 내용에 비해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총괄부도 협의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11. 05 방송) : <마로보는 TV 음부즈맨 62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10월 24일, 강원도 속초 동쪽 앞바다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목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어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군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 조사중입니다. 선박의 발견 및 인도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군의 경계 실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오전 7시 10분경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이상한 배가 있다며 해경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길이 7.5미터의 소형 목선에 탑승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군에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해상에서 특이징후를 포착하고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이 소형 목선을 추적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군은 같은 날 새벽 5시 30분 경 목선을 파악하고 이상 표적으로 관리했지만 표적의 정체를 식별하지는 못했고, 목선이 NLL을 넘어 우리 어선에 발견돼 신고될 때 까지 선박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형 목선은 탐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신고 후 작전이 시작된 것은 경계 작전의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10월 25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경계 실패" 논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센터장은 군의 발표에 따르면 해군이 주민 신고를 받기 한참 전인 새벽 4시 30분 경부터 선박을 식별해 감시해왔고, 표적 번호를 부여해 추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로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군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는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8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자는 대개 북한 선박이 남하하는 경우 합참에서 먼저 식별하고 언론에 발표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민 신고 및 해경 출동 이후 언론 속보가 나왔고 그 이후 합참의 브리핑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상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대응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시망의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경계작전의 실패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심층적으로 해당 이슈를 살펴본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전달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적인 대비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감시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과연 정부가 군의 경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병력 부족 문제와 연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거의 모든 국정감사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흥분도 흥상이전, 해병대 수사외압 문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국정감사 중 하나였는데,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TV는 해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흥분도함 명칭 변경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박 전 단장이 장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을 키운 것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군의 잠수함인 흥분도함의 명칭변경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통렬히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국정감사의 중심에 정부의 정책이 아닌 여야의 당리당략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 해군본부의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두 배의 시간이 배정되었는데, 통상 육·해·공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틀에 걸쳐 시행되는데 대개의 경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하루, 이틀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두 배의 시간이 배정되었음에도 논의된 결과물은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외에는 없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국정감사의 본질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월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 대해 3국은 북한의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공동성명이 북러간 친선관계를 심히 왜곡한 것임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최근 잇달아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며 한미의 침략적 기도가 위협 계산을 넘어서고 있음을 주장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북침 전쟁 도발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은 국제정세가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합뉴스TV가 북한의 동향 대한 보도를 통해 국민과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제시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관심을 높이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해준다면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북한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11.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올부즈맨 62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고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나고야에서 한·중·일 환경부장관이 4년 만에 만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현안에 대한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KT가 개인비서 '에이닷'을, KT가 초거대 AI '믿음'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 간 인공지능 AI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5일 뉴스10소식인데요. 올 해 지난달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의 물가가 5% 이상 올랐으며,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5일 뉴스10에서

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라 전했는데, 같은 기간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크게 올라 피자 11.5%, 김밥과 라면은 9%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 등의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최근엔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관리 대상은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우유 등 모두 7가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전달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구체적인 퍼센트로 제시하고, 특정 식품의 가격 변동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돕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같은 대응책을 소개함으로써,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과연 정부의 대응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태스크포스의 조치가 과거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장기적인 물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정세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뉴스01에서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나고야에서 한·중·일 환경부 장관이 4년 만에 만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현안을 논의한다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국 장관은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자국의 주요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환경부는 이 밖에도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황사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하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황사 저감 등 동북아지역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

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오염수 방출이라는 세나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표명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단순히 한국의 내부적 우려를 넘어, 국제 사회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철저한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기에 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더 충실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회의라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환경부 장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은 세나라의 환경 협력의 기반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이 공동합의문의 간단한 내용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에는 연합뉴스티비가 이미 SKT가 개인비서 '에이닷'을 통해 소비자·글로벌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면서, KT 역시 최근 초거대 AI '민음'을 내놓으면서 이 동통신사 간 인공지능 AI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가 내놓은 한국형 초거대 AI '민음'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피 문구를 뽑거나,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용자와 감성대화도 나눈다고 하는데, AI를 통한 이통사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국내 최초로 1조 토큰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했다는데, AI 활용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대비 70% 가까이 줄였다고 하면서 일단 기업을 상대로 3년 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개인비서 '에이닷'을 통해 B2C 영역까지 커버하겠다는 계획인데, '에이닷'은 통화요약이나 일정등록, 주소공유,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수면관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미디어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과 동맹을 구축해 45개국 12억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AI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 5년 내 25조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을 바탕으로 통신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통신 특화형 LLM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기술 중심의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SK텔레콤의 '에이닷'과 KT의 '민음', 그리고 LG유플러스의 예정된 '엑사원' 출시를 각사가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소비자 영역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통신 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넘어, 일상의 많은 부분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개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늘 문제되듯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극복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국 이동 통신사들의 AI 경쟁은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동사들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그들의 AI 서비스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4일 뉴스오늘에서는 중금속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폐나 뇌로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면, 공기질이 나쁠 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건강 수칙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미세먼지 속에는 철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들이 들어 있다면서, 입자가 매우 작은 이런 미세먼지는 폐까지 침입해 건강을 해치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장 질환이 증가하고, 특히 영유아기에는 천식 발생 위험도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뇌 속에 쌓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면서, 영국 연구팀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망자들의 뇌 조직을 살펴봤더니, 다량의 초미세먼지 성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바라 메이허 영국 캔커퍼대 교수는 금속 입자들은 세포를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데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특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부득이 외출할 경우는 식약처 인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초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KF80 마스크를 쓰면 노출 농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다만,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한 뒤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벗고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해 먼지들이 폐의 아래쪽까지도 침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바깥 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실내에서는 짧고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유해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호흡기 문제를 넘어 심장 질환과 뇌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전달한 점은 이해를 돕고 실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마스크의 선택 그리고 외출 시 KF80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실내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으로 보입니다.

<원샷>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좋은 보도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의 실내 환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건강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연구 결과를 보도하고 특히나 미세먼지가 어린이나

노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다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11. 1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2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 소식이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모두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던 스타들로, 이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도 매우 컸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6일 <뉴스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대답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지드레곤 씨의 수사 진행 쟁점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전 변호사는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간이 검사인 점을 설명하며, 현 상황에서 과도한 추측이 오가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나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향후 정밀 검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정밀 검사에서도 간혹 음성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약이 유통된 장소 등에서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연예인인 이선균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씨는 고의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마약을 투여했다고 알려진 장소가 사적인 장소인 점, 해당 장소에서 마약 투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정황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대답은 수사 쟁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대답 초기부터, 현 상황만으로는 관련 연예인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리기에 시급할 수 있다는 주의를 통해,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에 주목하지 않도록 해 보도의 무게감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밀 검사 외에도 다른 정황 증거들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통해, 해당 범죄가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반인 사이에서도 마약 유통 및 투여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방향이나 쟁점 뿐 아니라, 마약 유통 및 투여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대중의 의견들 가운데, 특히 저 연령층의 경우, 마약을 개인의 일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회 법 질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문가가 과거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마약의 속칭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마약의 은어나 속칭 언급은 자체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함께 주의해서 살펴볼 보도가 있는데요. 9일 <뉴스워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류 관련 처방 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미 올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권고 사항에 따르면, 언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 기자는, 정확한 명칭을 자제하고자 ‘마약류 관련 처방’,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활용된 자료화면에서는 약품의 정확한 명칭이 적힌 약병들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처방은 모방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는 보도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도블럭과 관련해 보도한 12일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인도를 소개하며, 폭이 넓고 한쪽에는 자전거 도로까지 갖춰져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인도와 비교해서도, 인근에 안마원이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보행이 잦은 길임에도, 점자블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점자블록이 없으니 직선으로라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도가 넓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요소가 더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점자블록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잦은 거리였지만, 2년이 넘도록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블록이 차도 가까이에 있거나 세워진 자전거와 가깝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평소보다 겨울이면 더 심해집니다. 추운 날씨에 길이 얼기 때문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인터뷰를 통해, 지팡이와 발로 점자블록이나 바닥을 느끼면서 가야 하는데 눈이 오거나 얼게 되면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보도는 기자가 직접 시각장애인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점자블록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삶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이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미 수차례 민원이 있었지만 제대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점자블록의 문제점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횡단보도 앞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점자블록을,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 의무 설치를 권고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점자블록이 다른 시설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울 것 역시 권고한 바 있어, 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보도한, 13일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단 유지하되,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인데요. 올해 3월 전체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노사를 포함해 6,030명이 참여한 설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노사 모두 40%를 넘는 등 동의 의견이 비동의 의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 방향에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말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해당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총선과 같은 정치적 이슈도 앞두고 있어,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련 보도 역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연합뉴스TV를 통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주요하게 개편되는 부분이나, 노정 간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 등에 대해 지속 보도하며 개편 추이를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본 보도에서 언급된 설문조사는 6천 명이라는 많은 표본 수로 분석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는데요. 표본의 구성이나 설문 문항의 구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맞물려 있는 이슈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용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13일 <뉴스오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의 직접 서울 편입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편입 시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혐오시설 유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포를 포함한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도 61.9%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많은 쟁점이 오가는 이슈를 다룬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요. 자료화면을 통해 조사 방법이나 표본 수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11.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2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02년,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선보였습니다. 출범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가졌다는 자평이 무색하게 지난주에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지난 17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뉴스1번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정 전산망인 '새울'의 이상으로 각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시민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어진 보도에서는 행정전산망 오류의 원인과 늦어지고 있는 전산망 복구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명주 교수는 인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마다 신분확인용 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무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보안인증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서버의 오류로 지자체 현장과 함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밝히며 업무처리는 여러 서버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통합검증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해 모든 업무 처리가 마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대비하기 위해 갖가지 경우에 대해 충분히 실습을 하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류를 대비하는 매뉴얼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울'이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서류 발급을 하지 못한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짚어주어 시청자들에게 폭 넓은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 당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자막으로 반영되지 않아 인터뷰의 내용과 자막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의견은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아 자막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각 질문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 게임을 넘어 e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지난 19일 e스포츠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면서 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뉴스초점에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월드컵만큼 큰 축제로 여겨지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 경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는 리그오브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의 운영방식과 게임 이용자 수, 게임 시청자 수를 언급하면서 이 게임의 인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이 게임이 채택되면서 초대 우승팀이 우리나라였다는 점과 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서 병역 특례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게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팀인 T1이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경기가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찌감치 1만 8천여 장의 결승전 티켓 매진과 원래 가격의 12배가 넘는 가격에 유통되는 압표를 통해 그 인기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영화관 생중계 티켓도 매진이 되어 압표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연 분야의 압표 관련 법이 통과 및 내년 3월부터 압표 판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e스포츠에는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e스포츠를 응원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로 정착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중계가 경기에 대한 해설보다는 실제 경기 장면만 송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응원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사회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e스포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비단 e스포츠로 불리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지마 흥기 난동 사건 등 우리 사회의 흉악 범죄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면서 게임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담에서는 게임이 e스포츠로 변화하고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소개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 압표 거래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립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게임이 지니는 경제 효과도 추가적으로 다뤄봤다면 게임 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만 주로 소비되던 K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빌보드 차트에 국내 가수들이 오르는 일이 빈번해 졌는데요, 그만큼 K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뉴스위치에서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부문이 신설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가수들의 수상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가수들이 새로 신설된 K팝 부문에서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수상한 부문은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톱 글로벌 K팝 송, 톱 K팝 투어링이며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 정국, 블랙핑크가 그 주인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문의 수상자들이 이룬 성과를 전하면서도 이 외의 부문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10여 년 전 만 해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의 오리콘차트에 오르는 것을 보고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인기 아이돌 그룹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그만큼 K팝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미국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우리 가수들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K팝이 지닌 영향력을 잘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부문들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부문을 신설한 것에 대해 K팝을 팝이라는 커다란 부분으로 다루기보다는 장르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의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음악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우리 가수들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K팝의 위기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K팝이 지니는 의미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인 보도와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더해 다뤄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으로 빚을 막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카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2일 뉴스센터12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신용카드 9개 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조 4,90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5%, 9월보다 6.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론 대환대출의 확대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드론 대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악화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게되면 당장 급한 것에 대해 연체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한데요, 이는 결국 금융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빚 부담의 증가로도 연결됩니다.

이 보도에서는 단순히 카드론 대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카드론 대환대출의 원인으로는 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외의 요인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현상을 바라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뉴스1번지를 통해 저연령층의 명품소비 현상을 조명해본 만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카드론 대환대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의미있는 보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3년 11월 5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3년 11월 12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3년 11월 19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3년 11월 2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